

華嚴敎學의 法界義의 高찰

本覺(陳永裕)

佛敎學科 敎授

화엄교학에서 매우 중요시하는 용어 중의 하나인 '法界'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자신에 대한 단순한 질문이 이 논문을 정리하게 된 동기이다. 이 논문은 법계의 의미를 정리하는데 4단계의 고찰을 거치고 있음을 밝힌다.

그 첫째는 '법dharma'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 둘째는 '계dhātu'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 셋째는 '법계dharma-dhātu'의 일반적인 의미, 넷째는 화엄의 법계의 의미이다.

마지막은 화엄교학의 법계의 의미를 고찰하는데, 먼저 『화엄경』 중의 법계의 용례를 정리하였고, 다음은 화엄 관계의 문헌을 통하여 화엄교학에서 법계가 가지고 있는 多義的인 의미를 검토하였고, 나아가서는 법계 연기사상의 형성 및 전개에 사상적 흐름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다의적인 법계 연기 사상의 전환점과 같은 역할을 한 교의로서 一心 및 一眞法界를 검토하였고, 결론으로 법계의 의미는 대승불교의 空性의 개념과 같이 하나의 개념으로 한정하거나 설명하기 어려운, 포괄적인 상징의 용어로서 이해하여야 함을 밝혔다.

華嚴教學의 法界義의 고찰

本覺(陳永裕)

佛教學科 教授

- I. 서론
- II. 法의 의미에 대한 탐구
- III. 界의 의미에 대한 탐구
- IV. 法界의 용어에 대한 정의
- V. 화엄교학의 법계의 의미
- VII. 결론

I. 서론

본 논문의 주제는 화엄교학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法界’에 대한 의미를 고찰하고 그 사상성을 추구해 보는 데에 목적이 있다. 『화엄경』의 전체 품목을 보더라도 마지막 ‘법계에 들어가는 장’ 곧 「入法界品」으로서 종료되어 있고, 그 전단계가 ‘세간을 여의는 장’, 즉 「離世間品」이 대립되어 있으므로, 이 때 法界와 世間은 대립과 차별적인 의미로 쓰여지고 있다고 본다. 그리고 또한 어떤 의미에서는 화엄교학은 일체를 법계에 포괄시켜서 해석하고, 또는 法界에 합일시키는 것으로 쓰이고 종결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와 같이 중요한 의미로 쓰이고 있는 ‘법계’를 과연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추구해 볼 만한 과제이다.

화엄교학의 법계를 정의하기에 앞서 근본불교 이래 불교의 중심 과제가 되어온 ‘法’의 문제를 고찰하고 ‘界’의 의미를 더듬어서 ‘법계’가 함축하고 있는 각종의 의미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법계’의 문제를 추구하기에 앞서 불교에서 말하는 ‘法이란 무엇인가’의 물음

에 대한 형식적인 답변으로 부파불교의 논서인 『俱舍論』에서는 五位七十五法으로 나누어 정리했다.¹⁾ 이는 결국 法과 非法, 善法과 不善法, 虛妄法과 眞實法, 有漏法과 無漏法 등 2분법적인 法의 개념을 낳게 하였고, 근본불교로부터 고찰되어진 ‘法’에 대한 총괄적인 용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그 첫번째 정리가 가이거(Geiger) 부부의 저서인 『Pali Dhamma』에서 법의 용례에 60 이상의 종류가 있음을 보이고 다음의 네 부류로 요약하였다고 한다.²⁾

- 1 : 法則, 正當, 規準
- 2 : 敎法
- 3 : 眞實, 最高의 實際
- 4 : 經驗的 事物

그리고 가이거 부부가 참고하고 있는 불다고사(Buddhaghosa, 佛音)의 저서에서 法의 용례를 열거하고 있는데, 다음의 다섯 종류로 정리하고 있다.³⁾ 즉,

- 1 : 德(guṇa)
- 2 : 敎法(desana)
- 3 : 經典(pariyatti)
- 4 : 因(hetu)
- 5 : 實體가 없는 것, 生命이 없는 것(nissatta-nijjiva)

등이다. 또한 불다고사는 그의 『淸淨道論』에서 四無碍解 중에 法無碍解를 해석하는 가운데 “法이란 緣과 同義語로서 이 緣은 모든 것을 결정케 하거나 生起시키며, 得達케 하므로 法과 같은 뜻이다.”라고 정의하면서 이 法에는,

- 1 : 果를 生起하는 因
- 2 : 聖道
- 3 : 所說
- 4 : 善

1) 『俱舍論』(大正藏 29·20상), 『俱舍論記』(大正藏 41, p.78중)

2) 平川彰著作集제1권 『法と緣起』1988 春秋社, p.5

3) 위의 책, p.6 참고

5 : 不善⁴⁾

등의 5종법으로써 法의 개념을 총괄하고 있다.

이상의 法에 대한 개념을 참고로 하여, 平川彰 박사는

첫째, 원시불교에서 法은 聖典, 說法으로서의 法을 논하여 곧 教法을 의미하는 ‘法’의 개념을 설정하고, 이때의 법의 의미는 9분교, 12분교가 중심이 된다. 그리고 이것을 法이라 이름하는 것은 佛陀가 깨달은 法이 이들 聖典에서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둘째, 三寶 중에 法寶로서의 三歸依의 형식 속에 나타나는 법이다. 그러나 이때의 법을 박사는 불타에 의하여 개시된 교법을 나타내는 일면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教法 이외의 法에 귀의를 표명하는 예가 의외로 많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석존 자신이 성취한 깨달음을 의미하는 것이다.⁵⁾ 또한 석존은 스스로 깨달음을 성취한 다음에 자신의 심경을 토로하여, “존경하거나 공경할 것이 없는 것은 피로움이다. 나 자신보다 뛰어난 戒蘊 · 定蘊 · 慧蘊 · 解脫蘊 · 解脫知見蘊을 갖춘 사람을 찾기 어렵다. 그러므로 나 자신은 스스로 깨달은 法을 존경하고 공경하여 머물도록 하자.”⁶⁾ 라고 말하고 있다.

위의 경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타의 교설로서의 教法이 아니라, 석존 스스로가 깨달은 法에 대한 귀의와 공경인 것이다. 따라서 삼귀의 속의 범보에는 교법으로서의 법과 불타의 깨달음 자체로서의 법이 있음을 살필 수 있는 것이다. 『숫타니파아타』 『寶經』에서 말하고 있는 불타가 깨달음을 통하여 갖추게 된 법을 滅盡 · 離貪 · 無間定 등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대하여 滅盡은 涅槃이며, 離貪은 解脫이며 번뇌를 끊는다는 의미에서 지혜가 중심이 되고, 이는 결국 涅槃과 五分法身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불타의 人格 그 자체가 바로 法이며, 불타의 人格은 涅槃으로서의 普遍性을 갖는다고 한다.⁷⁾

셋째, 因으로서의 法의 의미이다. 이는 위에 이끈 『清淨道論』에서의 四無碍解 중에 法無碍解를 因으로써의 法의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4) 『南典大藏經』 제64권 p.9, 平川彰위의 책 p.35 참고

5) 平川彰박사는 『숫타니파아타』 『寶經』 Sn.pp.39~40, 『南典大藏經』 제24권 pp.82~83의 다음의 경문을 예로 들고 있다.

禪定에 들어간 석가모니가 證得한 滅盡 · 離貪 · 甘露 등은 이것이야말로 法으로서의 수승한 보배이다. 이 眞理에 의하여 福됨을 얻으리. 가장 뛰어난 불타가 찬탄한 清淨함을 세간의 사람들은 無間定이라 하나니, 이 定과 동등한 것은 없다. 이 최상의 보배는 이 법 속에 있나니 이 진리에 의해서 福됨을 얻으리.

6) 『잡아함경』 권44(大正藏 2, p.321하~322상)

7) 平川彰 앞의 책 pp.24~25참고

넷째, 德(guṇa)으로서의 法의 의미이다. 이는 곧 善法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惡과 不善法을 제한 것이다. 여래가 갖추고 있는 일체 공덕과 不共法이 여래의 덕이며, 수행의 목표인 十善業道, 三學, 五分法身, 聖道 등이 다 이 범주의 法에 속한다고 본다.

다섯째, 事物로서의 법의 의미이다. 이는 본다고사는 “實體가 없는 것, 生命이 없는 것 (nissatta-nijjiva)”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제일 먼저 五蘊法을 의미하며 오온법을 체 관하여 얻어지는 이치는 無常·苦·無我임을 깨닫는 것이다. 그러나 이 오온이 단순히 물질만이 아니고 심리작용과 心不相應行法이 포함되어 있으며, 오온은 有爲法만을 의미하나, 事物로서의 法에는 無爲法도 포함될 여지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⁸⁾

이상의 法에 대한 정리를 통하여 앞으로 문제로 삼고자 하는 법의 개념은 ‘석존의 깨달음으로서의 法寶’와, ‘果法을 生起하는 因으로서의 法’과, 이 둘을 포괄하여 ‘有爲와 無爲를 포함한 事法으로서의 法’이다. 이들이 대승불교 특히 화엄교학에서 추구하는 法, 내지 法界의 의미에 포괄적인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고 본다.

II. 法의 의미에 대한 탐구

1. 法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

1) 존재 일반으로서의 연기법

불교 경전상에 ‘法’은 dhamma(p.), dharma(s.) 로 표기하는데, 이 말이 내포하고 있는 내용은 너무나 다양하고 함축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확실적으로 단정 짓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경전상의 용례에 따라서 그 의미를 추구해 보고자 한다.

먼저 法은 넓은 의미에서 存在(bhava) 일반을 뜻하며, 이 존재 속에는 ‘法則적 性格’과 ‘眞理적 性格’이 나누어 들어있고, 이 성격이 바로 법(dharma)을 법(dharma)으로서 인정하게 되는 근본 원인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 곧 모든 존재 속의 법칙성과 진리성이 법(dharma)인 것이며, 이것을 有爲法(sanskṛta-dharma)이라 하며 연기법으로서의 法인 것이다.⁹⁾ 여기에서 緣起와 法을 동일시하는 경문으로는 『中阿含經』의 다음 글이 유명하다.

8) 平川彰 앞의 책 p.45.

9) 平川彰 앞의 책 p.3.

즉

만약에 연기를 보면 곧 법을 보는 것이요 만약에 法을 보면 곧 연기를 보는 것이니, 그 까닭이 무엇인가. 諸賢이여, 세존이 설하시기를 오음이 인연을 좇아 일어나는 까닭이 나라 하셨다.¹⁰⁾

위의 경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초기 경전에서는 존재 일반을 뜻하는 法은 곧 존재를 형성시키는 인연법이며, 이 인연법이 곧 色·受·想·行·識의 오음법을 가리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오음법이 곧 모든 존재의 근본이 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연기를 보는 것이 곧 법을 보는 것’이라는 緣起와 法의 동일성을 설하는 초기 경전의 사상에 이어서, 여기에 일보 발달한 형태의 경문은 『大方等大集經』 중 『陀羅尼自在王菩薩品』에 ‘緣起가 곧 見法이며 見法이 곧 見佛’이라고 하는 사상으로 발전하여 緣起와 法과 佛이 동질로 이해되고, 유위법과 무위법이 동일 연기로 전개되고 있음을 본다.¹¹⁾ 또한 『화엄경』에서도 緣起法을 보는 보살은 法의 청정함과 國土, 虛空, 法界 내지는 智慧의 청정함을 본다고 하여, 緣起와 法과 國土와 法界 그리고 智慧 등의 有爲法, 無爲法을 同一淸淨法으로 보게 된다고 설하고 있다.¹²⁾ 이는 잡다한 연기 현상을 통하여 연기를 생기본원적인 理法을 깨닫게 함이며, 존재의 因으로써의 理法을 깨달음으로써 순일의 이치에 귀납하는 인식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다.

2) 보편하는 理法으로서의 法 개념

초기 경전에는 五蘊法을 존재의 근본으로 삼는데, 이 오온법을 바르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연기의 현상을 諦觀하는 觀法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法은 끊임없이 유동적인 형태로 존재하며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오온법을 초기

10) 『중아함경』 「象跡喻經」, (大正藏 1, p.467상)

11) 『大集經』중에 十二因緣을 法이라고하고, 見法이 곧 見佛이라고 설하는 경문은 다음과 같다.

入決定聚者 名爲了義 了義者 名第一義 第一義者 名無衆生 無衆生者 名不可說 不可說者 卽十二因緣義 十二因緣義者 卽是法義 法義者卽是如來 以是義故 我經中說 若有得見 十二因緣 則爲見法 見法者爲見如來 見如來者 卽無所見 (大正藏 13, p.13상)

12) 『화엄경』 「리세간품」에 다음과 같은 경문이 있다.

菩薩摩訶薩 見緣起法故 見法淸淨 見法淸淨故 見國土淸淨 見國土淸淨故 見虛空淸淨 見虛空淸淨故 見法界淸淨 見法界淸淨故 見智慧淸淨 (大正藏 10, p.307상)

경전에서는 無常이며, 苦이며, 無我라고 설한다.¹³⁾ 또한 『俱舍論』에서는 이 無常, 苦, 無我到空을 더하여 諸法の 共相(sāmānya-lakṣaṇa) 이라고 밝히고 있음을 본다.¹⁴⁾ 이러한 法の 共相은 바로 현상에 내포되어 있는 理法으로 존재하는 것이며, 이는 諸法の 共通性を 인정하는 것임과 동시에 不變易性 또한 인정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理法을 體得하는 것을 곧 깨달음이라고 하고, 또한 연기법을 체득했다고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석존은 스스로 깨달은 緣起法이 理法으로 영원하며,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님을 다음과 같이 설한다.

緣起法이란 내가 만들어 낸 것이 아니며, 또한 다른 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니, 그러므로 如來가 세상에 나오거나 나오지 아니하거나 法界는 常住하나니, 如來가 이 법을 自覺하여 等正覺을 이루며, 모든 중생을 위하여 分別 演說 開發 顯示하나니, 이른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므로 저것이 일어나나니라!¹⁵⁾

위의 경문에서 설하는 바는, 보편성을 갖는 理法으로서의 연기법은 여래의 出世나 不出世에 관계없이 常住의 法으로 法界가 항상하다는 내용이다. 존재의 근본으로서 오온의

13) 『잡아함경』 제9, 10, 11, 12, 13, 33 등 경문 참고(大正藏 2, p.2~8)

14) 『구사론』 「분별현성품」에 法の 성품을 自相과 共相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如何修習四念住耶 謂以自共相觀身受心法 身受心法各別自性 名爲自相 一切有爲皆非常性 一切有漏皆是苦性 及一切法空非我性 名爲共相(大正藏 29, p.118하).

또한 이 共相을 이해하는데 참고가 되는 것은, 化地部の 說로 전해지는 “모든 善法으로서의 眞如, 모든 不善法으로서의 眞如, 모든 無記法으로써의 眞如”라고 하는 등은, 일체법의 배후에 개별적인 自性體를 뛰어넘어 諸法の 普遍相(共相)으로 단지 하나의 眞如를 인정하는 사상이며, 이것은 뒤에 大乘佛敎에서 말하는 ‘一切法の 眞如’에 이어지는 것이라고 한다. (袴谷憲昭, 1985, 「緣起と眞如」, 『佛敎思想の諸問題』 pp.195~196, 春秋社)

15) 『잡아함경』 제299경(大正藏 2, p.85중), 또한 『잡아함경』 제296경에는 다음과 같이 경문 표기에 차이가 있다. 즉, 緣起法에 대해서 因緣法과 緣生法을 나눈점과, 法界常住에 대하여 此法常住 法住法界라고 하는 표현의 차이이다. 그리고 法界常住를 해석함에 緣生法으로서의 法界가 常住한다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아래 경문의 ‘이 법이 상주하여 법이 法界에 상주한다’는 뜻과도 이어지는 것이다.

我今當說因緣法及緣生法 云何爲因緣法 謂此有故彼有 謂緣無明行 緣行識乃至如是如是 純大苦聚集 云何緣生法 謂無明行 若佛出世若未出世 此法常住 法住法界 彼如來自所覺知 成等正覺 爲人演說開示顯發(大正藏 2, p.84중)

연기법을 현상적인 존재법으로 말하고 法の 차별상을 논하는 법의 自相을 인정하였다고 한다면, 보편성을 갖는 이 법으로서의 法の 共相은 如來가 出世해서 비로소 설한 法이 아니라는 『아함경』의 敎說을 통하여 法の 常住性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법의 개념이 갖고 있는 한정성과 무한성을 동시에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초기 경전의 교설이 곧 대승불교 法 개념을 ‘法空’과 같이 무한대로 표출시키는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추측한다. ‘法이 空하다’함은 곧 法の 무한정성과 무시간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法空을 논할 즈음에 다시 대승불교의 근본 명제인 空性(sūnya)의 문제에 나아가게 되며, 이 空性을 통하여 본 논문에서 문제로 삼고 있는 ‘華嚴法界’에 대하여 근접할 수 있는 통로를 얻게 되는 것이다. 그 까닭은 空性은 眞如(tathatā)이며, 實際(bhūtaḥ)이며, 無相(animitta)이며, 法界(dharma-dhātu)와 동일한 의미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¹⁶⁾ 여기에서 공성, 진여, 법계, 실체가 동일선상에 놓이게 됨으로서 진여는 곧 法으로 연결된 世界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이 法으로 연결된 세계는 연기법에 의해서 표상 되어지며, 화엄의 법계 또한 ‘법계연기’라는 말로 특징지어지고 있는 것이다.

III. 界의 의미에 대한 탐구

‘界’에 대한 의미를 탐구하는데에 界를 사용한 용례로서, 『中阿含經』, 『分別六界經』에서 地界, 水界, 火界, 風界, 空界, 識界 등의 6界를 들고 있고,¹⁷⁾ 나아가 意識界를 중심으로 界의 확립은 18界가 근본이 된다고 본다.¹⁸⁾ 이때의 界의 의미는 열여덟 가지의 分限을 의미하며, 그 중에는 意識의 대상경계로써 法界¹⁹⁾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界

16) G. M. Nagao, 『Madhyāntavibhāga-bhāṣya』 Tokyo, 1964, pp.23~24. 平川彰 앞의 책 p.70참고

17) 『中阿含經』에 地, 水, 火, 風, 空, 識 등 6界를 들고, 이들 각각에 다시 內界와 外界를 들어서, 신체의 내적인 것과 외적인 대상 경계를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 (大正藏 1, p.690중) 또한 『中阿含經』, 『象跡喻經』에서는 四大를 四界라 하고, 역시 內界와 外界로 나누어서 설하고 있다 (大正藏 1, p.464하).

18) 『구사론』, 『분별계품』에서는 界에 대한 종류에 十界, 七界, 二界, 十八界, 또는 前五識만을 지칭해서 五界라는 명칭도 보인다. (大正藏 29, p.3~4)

19) 『구사론』에서는 五蘊 중에 受蘊 想蘊 行蘊의 三法과 無表와 無爲를 法處의 法界라고 이름하고 있다. (大正藏 29, p.4상)

는 곧 種(bija), 性質(dharma), 機根(indriya)등을 공통으로 의미하는 心的要素를 나타내는 용어라는 지적도 있다.²⁰⁾ 또한 『俱舍論』『分別界品』에서는 일체법을 총섭한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의 蘊處界를 의지하여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는 곧 自性만을 攝取하기 때문이라고 한다.²¹⁾ 이처럼 『구사론』에서는 蘊과 處와 界를 함께 취급하여 ‘生門種族’의 의미로 설명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모든 有爲法이 화합하여 모인 것이 蘊의 뜻이며, 心心所法을 生長시킨다는 의미가 處의 뜻이며, 특히 法の 種族義가 界의 뜻이라고 한다.²²⁾ 그리고 이 界에 대한 설명으로 하나의 커다란 山中에 金銀銅鐵 등 많은 광물질이 있는 것을 각각 ‘많은 界’라고 말하고, 또는 우리의 한 몸에 18類의 諸法種族이 있는 것을 18界라고 설하고 있다.²³⁾ 즉 界의 의미를 일체법을 하나하나 나누어서 각각의 특성과 작용을 인정하는 것을 種族義, 또는 각각의 작용을 생장시킨다는 설명 속에서 界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界는 곧 自種의 同類因으로의 分限의 의미가 있고, 특성을 밝히는 종족의 의미가 있으며, 또한 각각의 작용을 인정하는 생장의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18界는 다시 欲界, 色界, 無色界의 3界로 나누어서 요약되고 있다.²⁴⁾ 또한 界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은 『淸淨道論』²⁵⁾에서 볼 수 있다. 이것 역시 界는 18界를 의미하는 것으로 界를 해석하는 데에 일곱 가지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35界 중 法界를 지목하고 있다.²⁶⁾

이상의 界에 대한 고찰에서 우선 요약할 수 있는 것은 界는 分限과 同類因을 의미하

20) 高崎直道 「華嚴教學と如來藏思想」(『華嚴思想』1960, p.306, 法藏館)

21) 상동, 總攝一切法 由一蘊處界 攝自性非餘 以離他性故 (大正藏 29, p.4중)

22) 『구사론』(大正藏 29, p.4하~5상)

23) 상동, 法種族義 是界義, 如一山中 有多銅鐵金銀等族 說名多界 如是一身或一相續有十八類 諸法 種族 名十八界 此中種族 是生本義 如是眼等誰之生本 謂自種類同類因故 若爾無爲應不名界 心心所法 生之本故(大正藏 29, p.5상)

24) 상동, 欲界繫十八 色界繫十四 除香味二識 無色繫後三(大正藏 29, p.7중)

25) 佛音三藏(Buddhaghosa)의 저술인 『淸淨道論』(南典大藏經제62-63-64권)은, 漢譯 優波底沙(Upatissa)의 저술인 『解脫道論』(大正藏 제32권 수록)을 저본으로 하여 改造 增補한 것이라고 한다. 이문서들은 戒·定·慧 三學을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고 慧學 중에 處와 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26) 界를 설명하는 일곱 가지의 관점이란, 義, 相等, 順序, 限量, 數, 緣, 所見 등을 말한다. 그리고 이 7法에 의해서 18界를 설명하는 가운데, 예를 들어 界의 限量을 설명하는 것을 보면, 界의 수량을 말하는 것으로 光明界, 淨界, 空無邊處界, 내지 多界, 種種界世間 등 35종의 界를 들고 있다.(南典大藏經 제64권 p.97), 또한 이 각각의 界 중에, 空無邊處界 중의 心心所法, 欲界, 出離界, 恚界, 害界, 無恚界, 無害界, 樂界, 苦界, 喜界, 憂界, 捨界, 無明界, 勳界, 勤界, 勇勤界, 水界, 空界, 그리고 無爲界의 일부를 法界라고 정의하고 있다.(南典大藏經 제64권, pp.97~98)

며 각각의 특성을 생장 지속시키는 작용을 가지고 있다. 界의 분한으로서는 18界가 대표가 되며, 이 18界 중에 意識의 대상경계인 法이 法界라고 하는 단순한 의미로 法界를 말하고 있다. 그리고 『淸淨道論』에서는 이 法界를 좀더 포괄적으로 설명하여 다종의 법계를 설하고 있는 것이다.

IV. 法界의 용어에 대한 정의

전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界를 설명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法界라는 용어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뜻은 처음은 18界 중에 意識의 대상인 法의 分限을 의미하여 法界라고 하던 것을 『淸淨道論』에서는 法界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空無邊處界 중의 心所法, 欲界, 出離界, 恚界, 害界, 無恚界, 無害界, 樂界, 苦界, 喜界, 憂界, 捨界, 無明界, 慳界, 勤界, 勇勤界, 水界, 空界, 그리고 無爲界의 일부를 法界라고 정의하고 있음도 살펴보았다. 이 『淸淨道論』의 法界의 범주는 절대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뒤의 대승불교에 이르러서 내포하고 있는 法界의 포괄적인 의미를 거의 網羅하고 있다고 보아도 옳을 것이다.

法界의 용례를 고찰하면, 우선 『阿含經』 중에는 2종의 法界(dharma-dhātu)가 설해지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 2종의 법계란, 첫째는 18界 중에 제6意識의 대상인 法界를 의미하며, 둘째는 法의 世界 전체를 포섭하는 法界라고 요약한다.²⁷⁾ 그리하여 후자의 예로써 『大本經』과 『無畏王子經』을 들고 있다. 먼저 『大本經』에 의하면 如來는 法界에 대해서 두루 잘 통달해 있기 때문에 과거제불의 種姓과 名字와 年壽와 弟子僧伽 등에 대해서 밝게 꿰뚫어 알고 있다고 설한다.²⁸⁾ 또한 『無畏王子經』은 무외왕자가 離繫派 外道인 난다붓다로부터 釋尊에게 찾아가서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던져보라는 지시를 받고 석존을 초청하여 공양을 올리면서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던졌을 때, 석존이 잘 대답하지자 무외왕자는 깊이 감탄하여 이번에는 여래는 모든 이의 질문을 받으면 미리 대답을 예상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상 없이 바로 지혜로운 답을 해주시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다. 여기에 대해서 석존은 예를 들어서 설명한 다음에 여래의 이와 같은 지혜가 발현되는 까닭은 ‘法界는 如來에 의해서 熟知되어 있기 때문’²⁹⁾이라고 설하는 대목에서 여래지혜는

27) 平川彰 『法と緣起』(平川 彰著作集第1卷, 春秋社, 1988, p.160)

28) 『大本經』(南典大藏經제6권, p.369, 371. 또한 한역 『大本經』에서는 첫 부분 계승 중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보인다. 「佛日光普照 分別法界義 亦知過去事 三佛般泥洹 名號姓種族 受生分亦知 隨彼之處所 淨眼皆記之」(大正藏 1, p.1하)

法界 일체를 통달하고 있다는 의미에서의 ‘法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法界란 법이 행해지고 있는 領域의 전체로서 이해되며, 이때의 법은 自相과 共相을 가진 法(dharma)이며, 法界를 두루 잘 안다고 하는 것은 일체법의 개개의 특수성과 전체적인 공통성을 모두 다 통달해 아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다.³⁰⁾ 그리고 이와 같은 法界를 이미 앞에서 이끈 바와 같이³¹⁾ 緣起法 그 자체의 法界는 여래의 出世와 不出世에 관계없이 永遠常住의 法으로서 표명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法界’가 空間的인 無限性과 時間的인 永遠性을 갖는 용어로서의 가능성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다시 法界에 대한 검토를 다른 각도에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大般若波羅蜜多經』「法界品」에서는 最勝天이 어떠한 것이 보살마하살이 深般若波羅蜜多를 배워서 法界를 通達하는 것인가 물으니, 여래는 대답하기를 보살이 번뇌를 여의고 三業을 청정히 하여 이 淸淨을 얻음으로써 尊重心을 발하게 되고, 尊重心을 발함으로써 空行을 닦게 되고, 空行을 닦음으로써 諸見을 여의고 正道를 修行하며, 正道를 修行함으로써 결국 法界를 能見하게 된다고 설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法界란 不虛妄性이며 不變異性이며 諸法眞如이며 言說을 여윈 寂靜聖智이며 無所住·無分別·無取捨·無染着이며 淸淨離垢이며 性常不變한 것으로서 여래의 出世와 不出世에 관계없이 性相이 常住하는 것이 곧 法界라고 정의하고 있다.³²⁾ 또한 慈恩基大師는 『大乘法苑義林章』「唯識義林」중에서 ‘唯識’을 설명하는 가운데에 14개의 뜻이 같은 용어로서 法界·法性·不虛妄性·不變異性·平等性·離生性·法定·法住·法位·眞際·虛空界·無我·勝義·不思議界 등을 들고, ‘大般若의 廣釋과 같다’고 주석을 달고 있다.³³⁾ 이는 앞에 이끌어온 『大般若波羅蜜多經』의 法界를 설명한 부분과 의미적으로 일치하는 내용이다. 다시 『入法界體性經』에서는 佛이 곧 法界라고 하며 如來에 갖추어져 있는 諸力無畏가 法界이며, 如來의 說法이 또한 法界라고 한다. 이 法界 중에는 일체 차별법을 보지 못하며 出入去來가 끊어졌으며 法界를 떠나지 아니하고 바로 世間을 본다고 설한다.³⁴⁾ 『度一切諸佛境界智嚴經』에서도 ‘菩提’를 淸淨無垢라고 정의하고, 無相·無爲·淸淨·無分別·法界·虛空 등이 다 함께 ‘無垢’로써 同一性品임을 밝히고 있다.³⁵⁾

이상을 요약해 보면 法界와 동일한 의미로 많은 용어들이 쓰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9) 『無畏王子經』(남전대장경제10권, p.176. MN. I, p.395)

30) 平川彰 앞의 책, p.161참고.

31) 앞의 註15번 참고.

32) 『大般若波羅蜜多經』(大正藏 7, p.929중~하)

33) 『大乘法苑義林章』(大正藏 44, p.260하)

34) 『入法界體性經』(大正藏 12, p.234하~235하)

35) 『度一切諸佛境界智嚴經』(大正藏 12, p.252하~253상)

법계는 이미 공간적인 의미의 한계를 넘어서 法の 性品 그 자체로 정의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華嚴敎學에서 '法界'에 부수되는 多義的인 敎義를 형성시키는 토대가 諸經論에 이미 마련되고 있음을 보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법계의 의미를 불교 일반에서는 眞諦의 同義語인 동시에 意識의 대상이 되는 事物 및 事象의 구성 요소 내지는 영역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³⁶⁾

V. 華嚴敎學의 法界의 意味

1. 『華嚴經』의 법계의 용례

먼저 『華嚴經』 자체 내에서 법계의 용례를 원문 그대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世主妙嚴品」

法界如如常不動(10/6하)

佛身周遍等法界 普應衆生悉現前(10/7하)

如來廣大遍法界 於諸衆生悉平等(10/8하)

了知法界無形相 波羅蜜海悉圓滿(10/12하)

如衆生數普現身 此一一身充法界(10/20중)

及說難思眞實理 令諸佛子入法界……入深法界方便門 廣大無邊悉開演(10/21하)

佛如虛空無分別 等眞法界無所依……如來境界無邊際 一念法界悉充滿(10/22상)

佛住眞如法界藏 無相無形離諸垢 衆生觀見種種身 一切苦難皆消滅(10/22중)

華藏世界海 十方盡法界 虛空界 一切世界海(10/26상)

「如來現相品」

佛身充滿於法界 普現一切衆生前 隨緣赴感靡不周 而恒處此菩提座(10/30상)

如來甚深智 普入於法界 能隨三世轉 與世爲明導(10/30상)

見佛眞實體 則悟甚深法 普觀於法界 隨願而受身(10/31상)

「普賢三昧品」

普賢恒以種種身 法界周流悉充滿 三昧神通方便力 圓音廣說皆無碍(10/33하)

36) 木村清孝『初期中國華嚴思想の研究』(1977년, 春秋社 p.510)

「世界成就品」

安住普賢諸願地 修行菩薩清淨道 觀察法界如虛空 此乃能知佛行處(10/35상)

菩薩能修普賢行 遊行法界微塵道 塵中悉現無量刹 清淨廣大如虛空(10/35중)

「華藏世界品」

華藏世界海 法界等無別 莊嚴極清淨 安住於虛空(10/51중)

「如來名號品」

普善觀察諸衆生界 法界 世界 涅槃界 諸業果報 心行次第(10/57하)

盡法界 虛空界 諸世界中 如來名號種種不同(10/60상)

「菩薩問明品」

法界 衆生界 究竟無差別 一切悉了知 此是如來境(10/69상)

「十住品」

一切見者三世智 於諸佛明了智 法界無碍無邊智 充滿一切世界智(10/88상)

「夜摩天宮中偈讚品」

若人欲了知 三世一切佛 應觀法界性 一切唯心造(10/102상)

若人欲求知 三世一切佛 應當如是觀 心造諸如來(9/466상)

「十行品」

菩薩深入衆生界 如法界 衆生界法界無有二 無二法中無增無減 無生無滅…法界無二故
(10/106하)

法界中 無有法名向聲聞乘 向獨覺乘 無有法名 向菩薩乘 向阿耨多羅三藐三菩提 無有法名
向凡夫界 無有法名 向染向淨 向生死向涅槃 何以故 諸法無二 無不二故(10/107상)

「十廻向品」

‘等法界無量廻向’

如法界無量善根廻向 如法界無起性廻向

如法界無邊善根廻向 如法界根本性廻向

如法界無限善根廻向 如法界自體性廻向

如法界無際善根廻向 如法界無依性廻向

如法界無斷善根廻向 如法界無忘失性廻向

如法界一性善根廻向 如法界空無性廻向

如法界自性清淨善根廻向 如法界寂靜性廻向

如法界隨順善根廻向 如法界無處所性廻向

如法界莊嚴善根廻向 如法界無遷動性廻向

如法界不可失壞善根廻向(10/172상) 如法界無差別性廻向(10/172중)

「十地品」

欲界色界無色界 法界世界衆生界 有數無數及虛空 如是一切咸通達(10/210중)

「十定品」

法界爲身無有分別…了一切法空無所有 所修諸行從法界生

猶如虛空無相無形 深入法界隨順演說 於一境門生一切智(10/225상)

「如來出現品」

虛空法界性平等 已能如是而安住 一切含生無數量 咸令滅惡除衆垢(10/262중)

譬如虛空遍十方 若色非色有非有 三世衆生身國土 如是普在無邊際

諸佛眞身亦如是 一切法界無不遍 不可得見不可取 爲化衆生而現形(10/267하)

‘如來音聲十種無量’…如佛境界無量 入佛法界故(10/270하)

聲聞與獨覺 及諸佛解脫 皆依於法界 法界無增減

佛智亦如是 出生一切智 無增亦無減 無生亦無盡(10/273상)

法界非界非非界 非是有量非無量 大功德者行亦然 非量無量非身故(10/274하)

佛身無數等法界 有福衆生所能見 如是無數——身 壽命莊嚴皆具足(10/277상)

「離世間品」

‘十種智慧助道具’

菩薩摩訶薩 見緣起法故見法清淨 見法清淨故見國土清淨 見國土清淨故見虛空清淨

見虛空清淨故見法界清淨 見法界清淨故見智慧清淨 是爲十 修行積集一切智故(10/307상)

「入法界品」

無來亦無住 無依無數論 離垢心無碍 究竟於法界…一切諸佛法 法界悉平等…

諸佛常安住 法界平等際 演說差別法 言辭無有盡(10/324중~하)

悉住普賢行 皆遊法界海 普現一切刹 等入諸佛會(10/327중)

汝觀諸佛身 清淨相莊嚴 一念神通力 法界悉充滿

盧舍那如來 道場成正覺 一切法界中 轉於淨法輪

佛身不思議 法界悉充滿 普現一切刹 一切無不見

佛身常光明 一切刹塵等 種種清淨色 念念遍法界(10/372하~373상)

‘各種十佛中’

法界音佛, 法界聲(10/376하~377중) 一切法界門 ——法界門(378상)

善男子 我‘寂靜音海主夜神’以如是淨法光明 饒益一切衆生 集善根助道法時 作十種觀察法界 何者爲十 所謂

我知法界無量 獲得廣大智光明故

我知法界無邊 見一切佛所知見故

我知法界無限 普入一切諸佛國土 恭敬供養諸如來故
 我知法界無畔 普於一切法界海中 示現修行菩薩行故
 我知法界無斷 入於如來不斷智故
 我知法界一性 如來一音一切衆生無不了故
 我知法界性淨 了如來願普度一切諸衆生故
 我知法界遍衆生 普賢妙行悉周遍故
 我知法界一莊嚴 普賢妙行善莊嚴故
 我知法界不可壞 一切智善根充滿法界不可壞故
 善男子 我作此十種觀察法界 集諸善根辦助道法
 了知諸佛廣大威德 深入如來難思境界(10/388중~하)
 我暫見彼如來身 卽發菩提廣大心 誓願勤求一切智 性與法界虛空等(10/390중)
 법성과 법계
 了達法性心無碍 生於三世諸佛家 普入十方方法界海 此明智者受生藏(10/403상)

이상과 같이 『華嚴經』의 경문 중 偈頌을 주로 하여 중요한 부분의 법계에 관한 내용을 뽑아 보았다. 경문의 내용을 몇 가지로 요약하여 法界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를 검토해 보자.

첫째, 주로 佛身과 혹은 普賢身의 廣大無邊함을 법계에 비유하고 있다.

둘째, 如來의 不思議性和 無所依性を 법계의 無形相·無分別·如如性·一念遍盡·眞如法界·法界爲身·法界非界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셋째, 단순히 법계는 空間的인 의미로 사용되어 華藏世界와 法界의 無差別을 설하고,³⁷⁾ 衆生界와 法界를 對比시켜서 法界와 衆生界는 無二의 世界로서 출입이 自在함을 설하기도 한다.³⁸⁾

넷째, 法界를 공간적인 場所의 의미보다는 진리 자체로서의 法界性 또는 智慧로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예를 들면, ‘法界如如常不動’ ‘法界無碍無邊智’ ‘應觀法界性’³⁹⁾ ‘見法界清淨故 見智慧清淨’⁴⁰⁾ ‘性與法界虛空等’⁴¹⁾ 등의 경문이다. 즉 法界性의 설명, 내지는 법계의

37) 『화엄경』(大正藏 10, p.51중)

38) 『화엄경』(大正藏 10, p.106하)

39) 『아마친궁중계찬품』의 이 계송은 구역『화엄경』에서는 ‘法界性’이 ‘如是觀’으로 번역되어 있다.(大正藏 9, p.466상)

40) 『화엄경』(大正藏 10, p.307상)

41) 『입법계품』(大正藏 10, p.390중)

청정을 보는 것이 바로 지혜청정으로 이어지고, 性品과 法界가 虛空平等하다는 등으로 해석하고 있다.

다섯째, 「十廻向品」 중 ‘等法界無量廻向’에서는 20종의 法界廻向을 설하는 가운데 자연히 법계의 특성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고, 「入法界品」에서도 10종으로 법계의 특성을 나열하고 있다. 즉, 법계는 無量·無邊·無限·無際·無斷·一性·自性清淨·隨順·莊嚴·不可失壞·無起性·根本性·自體性·無依性·無忘失性·空無性·寂靜性·無處所性·無遷動性·無差別性 등으로 법계의 복합적인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이상의 다섯 가지 특성으로 『화엄경』에서 설하고 있는 法界의 의미를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2. 법계 연기사상의 형성 및 전개

위에서 정리한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화엄교학의 원용무애성은 법계의 무애자재성과 동일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원용무애를 법계의 특성과 잘 합일시켜서 교학사상으로 발전시킨 것이 곧 ‘법계연기’라고 본다. 그리고 이는 다시 十玄門과의 연계 속에서 화엄의 법계 연기의 위치가 확립되었다고 보므로 그 법계 연기의 원형적인 면과 사상의 전개를 본 항에서 정리해 보고자 한다.

현존하는 『華嚴經』 주석서의 最古本이라고 하는 靈辨(477~522)의 『華嚴經論』의 斷簡에 의하면 특히 ‘三界法界’⁴²⁾라는 용례를 볼 수 있는데, 삼계와 법계를 함께 쓰고 있는 것에 대한 설명은 없다. 글의 내용으로 보아서 ‘삼계인 법계’라고 해석하여 삼계가 법계 속에 포함됨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할 뿐이다.

또한 慧光의 제자 法上(495~580)은 그의 『十地論義疏』에서 初地の 주석 중 몇 군데 法界에 대한 중요한 사상을 피력하고 있음을 본다. 즉, 證에는 ‘緣證’과 ‘體證’의 2種이 있는데, 體證을 설명하는 가운데 一切衆生은 다 法界로 體를 삼으나 번뇌에 덮여서 나타나지 못하므로 自體顯用の 如如平等을 깨달음이 體證이라고⁴³⁾하며, 또한 法界에는 2종이 있으니 첫째는 ‘事法界’이며 둘째는 ‘眞實法界’로서, 聲聞의 所知를 事法界라 하고, 眞實法界를 大乘의 法界라고 정의하고 있다.⁴⁴⁾ 그리고 世界, 虛空界, 法界, 佛出世界, 如來智界,

42) 靈辨『華嚴經論』(『南都佛敎』제9호, 제11호, 1961~1962, 東大寺)

43) 『十地論義疏』卷제1, 「一切衆生皆以法界爲體 煩惱覆故隱而不現 了因除彰自體顯用 如如平等故曰體證」(大正藏 85, p.762상~중)

44) 上同 「法界有二種 一事法界 二眞實法界 聲聞所知名事法界 不名爲大 眞實法界以爲大 與此相應成以爲勝 諸佛稱法界得圓用 菩薩分用(상동, 765하)

心緣界, 智入界를 밝히는 가운데 善惡, 無記, 眞如, 平等이 法界가 된다고 한다.⁴⁵⁾

吉藏(549~623)은 『華嚴遊意』에서 수달다 장자가 세운 기원정사와 法界의 기원정사를 나누고, 普賢 文殊 등 대보살은 法界의 기원정사를 본다고 하며⁴⁶⁾, 또한 二佛의 因果를 설하는 가운데 ‘離世間因 法界果’⁴⁷⁾라는 표현을 여러 번 쓰고 있는데, 이는 곧 世間을 여의는 因에 의하여 法界의 果를 얻는다는 의미로, 『離世間品』과 『入法界品』에 의한 발상이라고 보아지지만, 근본적으로 世間과 法界를 別個의 것으로 나누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는 것이다.

智儼(602~668)은 그의 많은 저서에서 法界를 중요한 용어로 사용함으로써 비로소 法界가 화엄교학의 중심적인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고 본다. 지엄의 문헌을 통하여 法界의 의미를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搜玄記』에서 漸·頓·圓의 3敎의 순차를 밝히는 글 가운데에 ‘實際緣起自體因行’을 밝힐 때에는 돈, 점, 원의 순서이고, ‘窮實法界不增不減無障礙緣起自體甚深秘密果道’⁴⁸⁾를 밝힐 때에는 원, 돈, 점의 순서라고 밝힌다. 이 가운데에 實際緣起의 因行과 窮實法界緣起의 果道라고 하는 중요한 法界연기의 개념을 정립하는 문구가 보이며, 또한 『十地品』의 주석 중에 일체 경계를 三轉으로 나눈 가운데 衆生界·世界·空界·心緣界는 世間轉에 속하고, 法界·涅槃界·佛智入界는 法轉에 속하고, 佛出世界·如來智界는 智轉에 속한다⁴⁹⁾고 하여 三種界로 나누고 있다. 여기에서 法界는 世間轉인 衆生界와 구별되고 있으며 智儼의 法界 연기의 染淨二法의 구조를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十地品』 제6現前地의 주석에서 ‘法界緣起’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때의 법계 연기는 ‘凡夫의 染法’과 ‘菩提의 淨分’⁵⁰⁾이라 2중의 구조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智儼은 『孔目章』이나 『五十要問答』에서도 法界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주로 三乘과 一乘의 境界를 나눌 때 일승의 分齊를 法界로 구별짓고 있음을 본다.⁵¹⁾

45) 上同, 「世界盡是衆生住處 卽體以自住無異住也 虛空界者復是世界住處 有爲界爲世界 無爲界以爲 虛空 法界盡明用此法化也 善惡無記眞如平等爲法界(大正藏 85, p.770중~하)

46) 吉藏 『華嚴遊意』

唯見須達祇洹 不見法界祇洹 ……如法界中普賢文殊等諸菩薩 則見法界祇洹 不見須達祇洹 所以然者 以諸菩薩心無斷常故 不見丘墟之土 唯見法界祇洹 不見須達祇洹(大正藏 35, p.8중)

47) 吉藏 『華嚴遊意』(大正藏 35, p.11하, p.13상)

48) 搜玄記(大正藏 35, p.15하)

49) 상동 (大正藏 35, p.54중)

50) 상동 (大正藏 35, p.62하)

51) 『孔目章』에 예를 들면,

上件蘊義 聲聞卽實 初敎卽空 終敎卽如 一乘卽法界無爲也 (大正藏 45, p.542상)

智儼의 제자 義湘(625~702)은 그의 저서 『華嚴一乘法界圖』의 제목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스승이 강조했던 ‘一乘法界’를 부각시켜서 화엄교학을 구상하고 있음을 우선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첫머리에 석가여래의 일대시교가 총섭하는 대상으로 三種世間을 들고 있으며, ‘法界圖’의 屈曲과 一道를 설명하면서 중생의 根欲이 같지 않기 때문에 굴곡의 三乘을 논하고, 一道로 始終이 없는 것은 여래의 善巧方便은 法界에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⁵²⁾ 여기에서 법계는 시종이 없는 無限성과 이 무한성을 인식하는 것은 곧 一乘의 分齊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뜻은 지엄의 사상을 이은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어서 緣起의 體를 一乘陀羅尼法이라 하고 이 一乘陀羅尼法은 ‘一’과 ‘一切가 相即圓融하는 것으로써 곧 ‘無障礙法法界’라고 정의하고 있다.⁵³⁾

그리고 義湘이 『一乘法界圖』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결국 緣起法의 本體와 現像의 무애자재함을 ‘一乘陀羅尼’ 또는 ‘無障礙法界’라고 보아서, 어느 하나에 치우침이 없는 理法을 ‘普法’ 또는 ‘法性’이라고 표현하고, 궁극적인 추구는 중생의 一時成佛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일승법계도』의 의도라는 것을 글의 말미에서 읽을 수 있다.⁵⁴⁾ 곧 ‘法界陀羅尼家’나 ‘緣起實相陀羅尼法’ 등의 표현도 다 뒤에 화엄교학에서 중요시되고 있는 ‘法界緣起’ 사상의 근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법계연기’는 지엄에게는 단순히 染·淨 二法의 연관관계로 표출되었던 것이 말년에 지엄이 강조한 ‘一乘法界’사상이 그의 제자 의상에 이르러서 緣起法이 강조되면서 ‘일승법계연기’사상으로 전개되는 과정을 ‘법계’라는 용어의 사용 용례를 통해서 알 수 있다.

法藏이 이룩한 화엄교학은 智儼과 義湘의 사상적 영향을 축적하면서 동시에 화엄별교 일승을 확립한 것이다. 법장이 ‘法界’라는 용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그의 『探玄記』의 현담에서 圓敎의 所說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다섯째, 圓敎의 所說은 오직 이 無盡 法界로서 性海가 圓融하고 緣起 無碍하며 相即相入하여 因陀羅網이 重重無際한 것과 같아서, 微細相容하고 主伴無盡하며, 十法門이 각 法界에 칭합하니 갖추어 아래에 설한 것과 같다.⁵⁵⁾

此獨在小乘 初敎即空 終敎即如 一乘即法界 (상동, p.551상)

聲聞約實法辨命 若初敎菩薩即空辨命 若終敎菩薩即如辨命 若約一乘即法界自在辨命(576하) 등이 보이고, 『五十要問答』에서도 “一乘은 곧 法界에 應하고 法界에 同한다”는 문구를 수처에서 발견할 수 있다.(大正藏 45, p.523상~하, p.524상~중, p.530하, p.531하, p.535상~하 등)

52) 義湘 『華嚴一乘法界圖』 「何故一道無有始終 顯示善巧無方 應稱法界」(大正藏 45, p.711중)

53) 상동 「初言緣起體者 即是一乘陀羅尼法 一即一切 一切即一 無障礙法法界也」(상동 p.712중)

54) 상동 (大正藏 45, p.716상 참조)

55) 法藏 『探玄記』 (大正藏 35, p.116상)

위의 글에서 원교의 가르침을 다함이 없는 法界라고 표현하고 또한 결국 法界에 합일 된다는 내용으로서 법장이 중요시하는 '圓敎'가 '法界'라는 용어로 설명되는 부분이다. 이는 뒤에 圓敎의 내용과 法界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지는 좋은 예문이라고 할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법장은 『華嚴經』의 宗趣를 논하는 부분에서도 '因果緣起理實法界'라고 하여 '大方廣'은 '理實法界'이며, '佛華嚴'은 '因果緣起'라고 하여, 인과연기는 無自性이며 無自性인 까닭에 理實法界가 되며, 法界의 理實은 반드시 定性이 없으며, 이 無定性이 곧 因果와 緣起를 일으키므로 이 둘은 곧 '唯一無碍自在法門'이 된다고 논을 전개시키고 있다.⁵⁶⁾

그리고 다시 법장은 별도로 法界를 총섭하여 因果를 논한다면, 普賢法界는 因이 되고 舍那法界는 果가 되므로, 이런 의미에서 오직 法界因果만이 宗趣가 된다고 하는 뜻은, 화엄교학의 法界의 의미를 普賢의 因行과 비로자나의 果證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⁵⁷⁾ 그리고 이 因果에 所信因果, 差別因果, 平等因果, 成行因果, 證入因果의 다섯 가지 인과론으로 華嚴一經을 논단하고, 이는 다 법계인과에 통섭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계속해서 因果를 모아서 法界와 同質이게 하기 위해서는 法界法門에 먼저 '十事五對'를 설하고⁵⁸⁾, 다음에 '法界因果分相顯示'중에 다시 '十義五門'을 들고 있다. 이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一無等境	—— 理實法界 ——	一是出纏最淨法界 二是在纏性淨法界
二無等心	—————	一大菩提心爲普賢行所依本故 二信悲智等隨行起故
三無等行	—————	一差別行各別修故 二普賢行一卽一切故
四無等位	—————	一行布差別位比證不同故 二圓融相攝位一位卽具一切位故
五無等果	—————	一修生果 二修顯果 ⁵⁹⁾

56) 상동 (大正藏 35, p.120상)

57) 상동 「七別開攝法界以成因果 謂普賢法界爲因 舍那法界爲果 是故唯以法界因果而爲宗趣」 (大正藏 35, p.120상)

58) 상동, 五對란 一敎義相對, 二理事相對, 三境智相對, 四行位相對, 五因果相對등이다.(상동 120중)

59) 상동 (대장경35, p.120중~하)

위의 정리에서 法界因果의 양면을 밝히고 있는데 결국 추구하는 것은 법계인과의 원응무애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의도를 마지막 ‘法界因果雙融俱離’에서 十義로써 華嚴無盡宗趣를 밝히는 가운데 제8, 9, 10義가 화엄의 법계원응무애 義를 가장 극명하게 나타내고 있다고 본다. 글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여덟째는 法界性이 응통하여 不可分인 까닭에 法界에 卽한 果가 法界를 統攝하여 다하지 아니 함이 없으며, 因은 所依를 따라서 또한 果 가운데에 있으니 이런 까닭에 佛 중에 菩薩이 있음이라. 아홉째는 法界에 卽한 因의 攝義가 또한 그러하니 그러므로 普賢의 가운데에 佛이 있음이라. 열째는 因果二位가 각각 따라 차별하니, ——法 ——行 ——德 ——位가 다 각각 無盡 無盡의 모든 法門海를 總攝한다는 것은 진실로 法界圓融을 該攝하지 아니함이 없음을 말미암는 까닭이라. 이를 華嚴의 無盡宗趣라고 이르는 것이라.⁶⁰⁾

위의 인용문에서 法藏이 말하고 있는 화엄의 因果, 宗趣, 教義 모두 法界의 無盡圓融에 포괄적으로 관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곧 華嚴法界思想을 형성해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문제는 法藏이 「十地品」 제6現前地の ‘三界虛妄但是一心’을 주석하는 가운데에 지엄의 ‘법계연기’를 이어서 法界緣起에 染法緣起와 淨法緣起 그리고 染淨合說중, 제3염정합설은 法藏이 새로이 전개한 이론이다. 그 내용은, 첫째 染을 버리고 淨을 나타내는 門, 둘째 淨으로 染에 응하는 門, 셋째 染을 모아서 淨에 卽하는 門, 넷째 染이 다하고 淨이 없어진 門이다.⁶¹⁾ 이 染淨合說의 내용이 지금까지 보아온 法界緣起의 원응무애를 나타내기 위하여 창안한 것이라고 보아지며, 이어서 經文의 ‘一心所攝’을 주석하면서 ‘十重唯識’을 전개하는 가운데에 뒤의 三重唯識⁶²⁾이 바로 법장이 주장하고 있는 법계연기의 本義에 이어지는 것이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法藏은 「入法界品」의 주석에서, 五種의 法界를 들고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내용을 명료하게 정리하기 위하여 원문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60) 상동 (大正藏 35, p.120하)

61) 『探玄記』

『三染淨合說者亦四門 一翻染現淨門 二以淨應染門 三會染卽淨門 四染盡淨泯門』(상동 344중)

62) 『探玄記』의 十重唯識 중에 뒤의 3重唯識, 즉 「八融事相入故說唯識 九全事相卽故說唯識 十帝網無碍故說唯識」(大正藏 35, p.347중)

初中先明所入法界義有五門 一有爲法界 二無爲法界 三亦有爲亦無爲法界

四非有爲非無爲法界 五無障礙法界

- 初有爲法界有二門 — 一本識能持諸法種子名爲法界
 二三世諸法差別邊際名爲法界
- 二無爲法界亦有二門 — 一性淨門 謂在凡位性恒淨故 眞空一味無差別故
 二離垢門 謂由對治方顯淨故 隨行淺深分十種故
- 三亦有爲亦無爲法界亦有二門 — 一隨相門 謂受想行蘊及五種色并八無爲 此十六法唯
 意識所知 十八界中名爲法界
 二無碍門 謂一心法界具含二門 一心眞如門 二心生
 滅門 雖此 二門皆各總攝一切諸法 然其二位恒不相
 雜
- 四非有爲非無爲法界亦二門 — 一形奪門 謂緣無不理之緣故 非有爲 理無不緣之理
 故 非無爲 法體平等形奪雙泯
 二無寄門 謂此法界離相離性故非二 由離相故非有爲
 離性故非無爲云云
- 五無障礙法界亦有二門 — 一普攝門 謂於上四門 隨一卽攝餘一切故 是故善財
 或觀山海 或見堂宇皆名入法界
 二圓融門 謂以理融事故 全事無分齊 謂微塵非小 能容
 十刹 刹海非大 潛入一塵也 以事融理故全理非無分 謂
 一多無碍云云⁶³⁾

이상은 『탐현기』의 「入法界品」 주석 중에서 五種法界의 정리이다. 각각의 二門 가운데에 마지막의 ‘無障礙法界’의 ‘普攝門’과 ‘圓融門’이 華嚴法界의 궁극적인 모습으로 「노사나품」의 연화장세계해의 一微塵 中에 一切法界를 본다고 하는 데에 經證을 이끌고 있다. 다시 ‘法界類別’의 五門에서도 첫째 法法界, 둘째 人法界, 셋째 人法俱融法界, 넷째 人法俱泯法界, 다섯째 無障礙法界를 들고, 여기에 각각 事法界, 理法界, 境法界, 行法界, 體法界, 用法界, 順法界, 違法界, 教法界, 義法界⁶⁴⁾의 十法界를 전개하여 모든 상황을 法界의 의미

63) 상동 (大正藏 35, p.440중~441상) 澄觀은 『華嚴經行願品疏』에서 이 五種法界를 각각 事界, 理界, 雙具事理, 雙非顯理, 從一至五不出無障礙法界(속장경1-7-3, 249右下)에 대응 시킴.

64) 상동 (大正藏 35, p.441상)

로 해석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文殊와 普賢의 上首菩薩을 거론함에 있어서도 普賢은 法界門에 대응시키고, 文殊는 般若門에 대응시켜서 普賢은 所入의 法界 그 자체로 해석하고 있음을 본다.⁶⁵⁾ 또한 法藏은 『華嚴經義海百門』에서도 ‘入法界’를 해석하는 가운데에 四種法界의 연원이 되는 理, 事, 理事無碍를 法界의 의미로서 들고 있다.⁶⁶⁾

화엄교학을 논함에 人的으로는 文殊, 普賢, 毘盧遮那의 三聖을 들 수 있고, 시간적으로는 無始無終의 圓融三世를 들며, 공간적으로는 三種世間 十方法界 연화장세계 등이고, 사상적으로는 十玄無碍, 六相圓融, 四種法界, 相卽相入, 重重無盡 등을 든다. 그리고 菩薩階位와 普賢行願, 善財의 求法행각 등이 화엄교학의 전반적인 면모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교의는 중흥무진으로 전개되어 그러한 현상과 작용면의 전체를 포괄하는 대명사가 곧 ‘法界緣起’사상이라고 본다. 화엄교학에서 이처럼 중요시되고 있는 法界라는 용어는 그 근본이 18界중에 意識의 대상경계로서의 ‘法界’를 시작으로 『阿含經』 중에 法(dharma)의 세계 전체를 포섭하는 것을 法界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如來에 의해서 잘 파악되어진 세계가 또한 法界인 것이다.

그런가 하면 이 ‘法’으로써의 法界는 공간적인 무한성과 시간적인 영원성을 갖는 용어로 쓰여지게 되었고, 『般若經』의 「法界品」에 이르러서는 보살이 諸見을 여의고 空行을 닦음으로써 正道를 修行하는 것이 되고, 결국은 法界를 能見하게 된다고 하여 法界는 곧 不虛妄性, 不變易性이며 諸法의 眞如로서 여래의 出世, 不出世에 관계없이 性相이 常住하는 것이 곧 法界라 한다. 이에 이르러서 법계가 하나의 空間的인 의미라고 보기보다는 眞理 그 자체인 法의 의미를 지니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法界’가 『華嚴經』 내지는 화엄교학에는 眞理性和 空間性을 나타내는 의미와 함께 法界가 내포하고 있는 無制限性 不變易性 平等性 등은 결국 如來에 의하여 표출되어진 衆生界와 佛界를 총괄하는 의미로 多義的인 개념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65) 『探玄記』 「上首二人 以其是助化主故 釋有三義 一普賢當法界門 是所入也 文殊當般若門 是能入也 表其入法界故 二普賢三昧自在 文殊般若自在 三普賢明廣大之義 文殊明甚深之義(상동 p.441하)

66) 法藏 『華嚴經義海百門』

入法界者 卽一小塵 緣起是法 法隨智顯 用有差別 是界此法 以無性故則無分齊 融無二相同於眞際 與虛空界等遍通一切 隨處顯現無不明了 然此一塵與一切法各不相知 亦不相見 何以故 由各各全是 圓滿法界 普攝一切更無別法界 是故不復更相知相見 縱說知見 莫非法界知見 終無別法界可知見也

經云 卽法界無法界 法界不知法界 若性相不存 則爲理法界 不碍事相宛然 是事法界 合理事無碍 二而無二 無二卽二是爲法界也(大正藏 45, p.627중)

여기에 불교사상의 전반에 걸쳐서 중심 교학이 되어온 '緣起'와 '법계'가 합일됨으로써 화엄교학은 보다 넓은 상정의 세계를 표출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본다. 그리고 다시 법계연기 사상은 새로운 국면을 전개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법계 연기사상은 그 사상의 연원이 이미 法界가 가지고 있는 다의적인 개념 자체에 내포되어 있으며, 智儼이 구상한 染淨二法을 총괄하는 법계 연기가 義湘에 이르러서는 一乘法이 강조되면서 一乘法의 내용이 곧 法界 내지는 연기다라니법으로 정의되었던 것이다. 또한 法藏은 緣起法을 중요시하는 교학체계 위에 자연스럽게 법계 연기사상이 구축되었던 것이다. 그의 초기 저작인 『華嚴五教章』의 제10義理分齊를 밝히는 4門 중 제3十玄緣起無碍法門을 해석하는 첫머리에서 '法界緣起'사상은 확립되었다고 본다. 글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대저 法界緣起란 이에 자재무궁하나 이제 要門으로써 略攝하면 둘이 되니, 첫째는 究竟果證義를 밝힘이니 곧 十佛의 自境界라. 둘째는 隨緣約因辨教義니 곧 普賢境界라. 처음 뜻은 圓融自在, 一卽一切, 一切卽一이니 그 모양을 不可說이라.……두번째 뜻은 둘이 있으니 비유로 보이고 法으로 보임이라. 비유는 數十錢法이며 云云⁶⁷⁾

위의 인용문을 통하여 현재 화엄교학에서 말하고 있는 법계 연기사상은 의상의 사상을 기초로 하여 법장에 이르러서 확립되었다고 보며, 위의 인용부분이 바로 그것을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법계 연기의 내용이 법장교학의 전면에 흐르고 있는 원융무애의 강조인데, 법계 연기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확립된 것이 곧 『華嚴經明法品內立三寶章』 하권(이하『삼보장』)의 「法界緣起章」에서 서술하고 있는 '법계연기'이다. 글을 인용해 보자.

대저 법계 연기란 礙와 容으로 가짐을 삼나니, 帝網이 該羅함과 같고 天珠가 交涉함과 같다. 圓融하고 自在無盡하므로 이름하기 어려우니 간략히 4문으로써 그 뜻을 서술한다. 첫째는 緣起相由門이며, 둘째는 法性融通門이며, 셋째는 緣性雙顯門이며, 넷째는 理事分無門이다.⁶⁸⁾

위의 글은 법계 연기를 설명하기 위하여 4문을 설정하고, 실제로 본 저서에서는 제1緣起相由門만을 설명하고 있다. 법장은 『화엄오교장』의 첫머리에서 一乘을 건립함에 別教

67) 法藏 『華嚴五教章』 (大正藏 45, p.503상~하)

68) 法藏 『화엄경명법품내립삼보장』 (大正藏 45, p.620상)

와 同教를 세우고, 一乘別敎의 내용으로 不可說인 十佛自境界와 可說로써 普賢境界를 들고 있다.⁶⁹⁾ 여기에 위에서 인용한 것과 같이 ‘법계연기’를 十佛의 自境界와 普賢 경계로 나누어서 그 내용으로 4門을 들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장은 화엄별교일승과 법계연기는 결국 같은 의미인 十佛自境界와 普賢境界이며 『華嚴五敎章』의 제10義理分齊 4門 중 제3十玄緣起無碍法門에서는 十佛自境界를 설명하는 것으로 그친다. 『三寶章』의 「法界緣起章」에서 다시 4門으로 설명한 것이 ‘緣起相由門’ ‘法性融通門’ ‘緣性雙顯門’ ‘理事分無門’이다. 緣起相由門과 法性融通門은 법장교학의 핵심이 되는 두 기등과 같은 역할을 한다.⁷⁰⁾ 법장이 각 저서에서 역설하고 있는 것은 처음의 緣起相由門이며 『삼보장』에서도 緣起相由門을 설명하는 것으로 그치고 있다. 여기에서 이상을 정리해 보면, 법장에 의해서 강조된 것은 결국 법계연기의 무애자재한 모양인데 그것에 대한 화엄교학적인 정리가 十佛의 境界와 普賢의 境界이며, 그것의 교학적 체계는 緣起相由와 法性融通임을 검토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十玄緣起를 대응시키고 있음을 『화엄오교장』에서 볼 수 있었다.

3. 화엄법계관문의 구조

다음은 華嚴관계 문헌에서 보이는 法界에 대한 특성중에 특히 그 대표적인 용어가 되는 것은 ①普賢法界 ②法界緣起 ③法界觀門 ④一眞法界 등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앞의들에 대해서는 이미 살펴보았으므로 본항에서는 ‘法界觀門’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法界觀門’이란 화엄종의 初祖인 杜順의 저서로 전해지고 있는 『華嚴法界觀門』⁷¹⁾ 나타내고 있는 法界觀門인 것이다. 이 문헌은 단행본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나 澄觀의 주석서인 『華嚴法界玄鏡』에서 그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澄觀의 『華嚴法界玄鏡』을 의지하여 杜順과 澄觀이 修行觀門의 체계상에서 法界를 정의하고 있음을 살필 수 있고, 이는 곧 杜順과 澄觀의 화엄사상의 차이점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먼저 法界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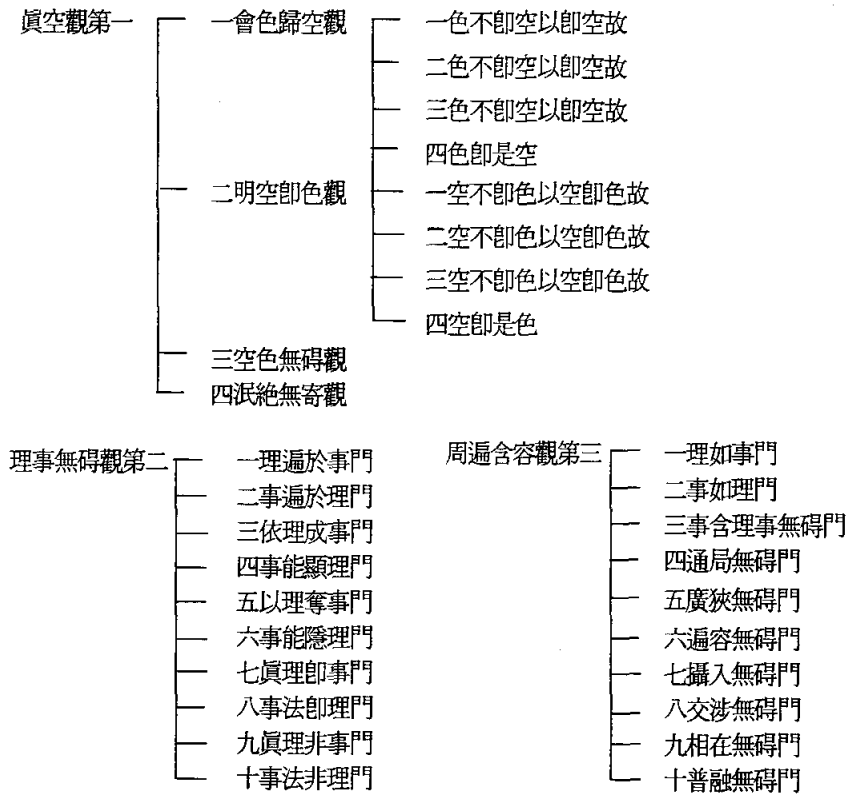
69) 법장 『화엄오교장』(大正藏 45, p.477상)

70) 法藏은 많은 저서에서 한결같이 그의 교학의 체계를 ‘緣起相由’ ‘法性融通’으로 거론하고 있음을 본다. 먼저 『유심법계기』에서 華嚴三昧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解와 行을 말하고, 그 解에 해당하는 것이 곧 緣起相由와 法性融通이다.(大正藏 45, p.646하) 또한 『화엄경지귀』에서도 法相의 圓融으로 10義를 드는 가운데 제9와 제10이며, (大正藏 45, p.594하) 다시 『탐현기』에서는 因緣無碍의 이유로 10類를 드는 가운데 제1과 제2이다. (大正藏 35, p.124상)

71) 『華嚴法界觀門』이 杜順의 著作인가에 대한 문제는 拙著 『華嚴觀法の基礎的研究』 1995, 民昌文化社, 제1장 제2절 제1항 참조

이해하는데 예서는 동일시점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으로써 하나의 저서를 통하여 두 사람의 法界義를 고찰할 수 있는 것이다.

『華嚴法界觀門』은 전체가 3觀 30觀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상의 3觀 30觀門이 『법계관문』의 골격이다.

이 『법계관문』의 삼중관(三種觀)에 대해서 結城令聞 박사는 『법계현경』의 저자인 澄觀이나 『주화엄법계관문』의 저자인 圭봉이 이 삼중법계를 천태의 삼제삼관(三諦三觀)과 대비해가면서 고찰하여 참뜻을 파해치려고 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라고 말하며,⁷²⁾ 징관의 『법계현경』의 주석을, 천태의 假·空·中の 3관에 대비시키고 있다.

72) 結城令聞 「隋唐の中國的新佛教組織の一例として華嚴法界觀門について」(『印度學佛敎學研究』昭和33年, 279頁)

『법계관문』의 제1 眞空觀의 4門인 第一會色歸空觀은 從假入空觀, 第二明空卽色觀은 明空卽色觀, 第三空色無礙觀은 亦色亦空의 雙照에 의한 中이며, 第四泯絕無寄觀은 非色非空의 雙遮에 의한 中으로 中道第一觀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다. 즉 이러한 정관의 『법계현경』이나 종필의 『주화엄법계관문』의 주석은 별도로 하더라도, 『법계관문』을 읽어보면 현상적인 색과 그에 상대하는空的 無礙를 논하고, 이어서 그 색과 공을 뒷받침하는 理와 事의 無礙를 논한다. 이어서 事が 理가 되거나, 理가 事が 되는 無礙自在한 세계를 三重觀으로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삼중관의 제 3주변함용관이야말로 화엄 圓融思想의 기초가 되었던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이 원용사상은 실천을 증시하는 隋·唐 신불교의 획기적인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천태의 3관은 이 화엄의 삼중관에 비하면 원용 이외에 무에라든가 자재라고 하는 개념이 부족한 것처럼 느껴진다. 정관의 『법계현경』에서

修法界觀門에 간략히 三重이 있다는 것은, 綱要를 標함이라. 修의 一字는 總히 一題의 止觀을 貫함이요, 熏修·習學·造詣인 것이다. 法界라고 하는 것은, 一經의 玄宗이며, 總히 緣起法界不思議로써 宗을 삼는 연고라. 그러나 法界의 相은 요약하면 오직 세 가지가 있느니라. 그러나 總具하면 四種이니, 一事法界, 二理法界, 三理事無碍法界, 四事事無礙法界이다.⁷³⁾

라고 하여 杜順의 『修大方廣佛華嚴法界觀門』⁷⁴⁾의 ‘修’의 의미를, 止觀에 의한 熏修·習學·造詣의 실천이라는 의미로 주석하고 있다. 그리고 정관은 법계의 의미로 4중 법계를 세워 화엄이 근본으로 삼는 법계의 의미 속에서 원용, 무애, 자재의 의미를 남김없이 표출하고 있다. 여기에서 법계의 의미는 닦아 증득할 境地로써 단계적인 원용무애의 세계를 표상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법계의 의미를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 『법계관문』의 三重觀으로써, 앞서 본 바와 같이 첫번째가 眞空觀이다. 법계관의 제1을 진공관에 둔 것은 반야 이래 대승공관에 그 근원을 두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법계관문』을 화엄의 가장 중요한 관법으로 삼는다면 그 관법의 기본을 공관에 둔 것이며 이는 곧 법계의 의미 또한 근본은 공이라는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나아가

73) 澄觀 『華嚴法界玄鏡』(大正藏 45, p.672하)

74) 修法界觀門의 ‘修’의 의미는 『法界玄鏡』에서 杜順의 『法界觀門』의 정식 명칭이라고 보 이는 「修大方廣佛華嚴法界觀門」의 약칭이며, 法은 體와 相과 用으로 나누고, 大는 體大로써 深法界라고 해석한다. 方廣은 聖智所緣의 所證의 法界라고 해석하고 있다.(大正藏 45, p.672상~중)

화엄관법에서 空觀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또한 이 空觀을 기반으로 하여 理事無碍觀, 周遍舍容觀이 전개되고 있는 구조이다. 이 삼중관을 순차적으로 고찰하여 周遍舍容觀에 최고의 가치를 주는 것이 화엄교학의 일반적인 견해이며, 이 周遍舍容은 곧 華嚴法界의 궁극적인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이 法界義는 澄觀에 있어서는 四種法界로써 새로운 체계를 이룩하게 되는 것이다.

澄觀이 『화엄법계현경』을 찬술한 것은 서문에서 보아 알 수 있듯이, 일련의 『화엄경』의 주석이 끝난 시기였다.⁷⁵⁾ 澄觀은 『화엄경소』 속에 『법계관문』을 이끌어 『법계관문』의 제2 理事無碍觀에는 거의 『화엄경』을 인용하여 그 내용의 經證으로 삼고, 나아가 제3 周遍舍容觀에는 반대로 명칭만을 가지고 와서, 화엄교의 十玄門을 배대시킴으로써 『법계관문』의 내용을 환골탈태시켰던 것이다. 그 결과, 『법계관문』은 명실공히 화엄관법서의 위치가 주어졌으며 화엄종의 관행 체계 속에서 정점(頂點)에 오르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法界를 설명하는데 가장 체계적인 도식은 징관의 4종 法界이고, 이 4종 법계의 형성에는 『법계관문』의 3관 30문의 구조가 기초가 되었음을 고찰하였다. 그러면 이 징관의 4종 법계의 형성 이전에는 어떠한 법계의가 있었던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表員⁷⁶⁾의 『華嚴經文義要決問答』⁷⁷⁾에 의하면, 징관 이전에 이미 여러 종류의 法界說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에 의하면 신라의 元曉는,

1. 有爲法界
2. 無爲法界
3. 有爲無爲法界
4. 非有爲非無爲法界

를 설하였다고 한다. 法藏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釋義는 같지 않지만, 원효의 4법계에 제5 無障礙法界를 더하여 五法界⁷⁸⁾를 설하였다고 하고 있다.

75) 『華嚴法界玄鏡』의 서문에

「余覃思大經 薄修此觀 羅其旨趣 已在疏文 云云」참조 (大正藏 45, p.672하)

76) 表員은 新羅 皇龍寺의 僧侶로 알려져 있으나 생몰연대는 不明이다. 著書로 『華嚴經文義要決問答』 4권이 현존하고 있다.(속장경1-12-4, 및 韓國佛敎全書제2권에 수록)

77) 『華嚴經文義要決問答』(한국불교전서 제2권, 372중)

78) 法藏의 五種法界說은 『探玄記』에서 보이고(大正藏 45, p.440중), 또한 『華嚴經旨歸』에서는 ‘釋經意’의 제10 法性融通 부분에서, 事法界, 理法界, 無障礙(大正藏 45, 595중), 『華嚴經義海百門』(大正藏 45, p.627중) 등에서 三種法界를 설하고 있다.

다시 표원은 ‘問答分別의 ‘법계의 體를 簡한다’라는 설명 속에서,

1. 隨緣法界
2. 對緣法界
3. 忘緣法界
4. 緣起法界

의 4법계를 들고 있다. 그리고 ‘法界의 體는 如如이다.’라고 懷師의 설⁷⁹⁾을 인용하고 있으며, 表員은 또한 緣法界⁸⁰⁾에 대해서,

1. 有爲緣集法界
2. 無爲緣起⁸¹⁾法界
3. 自體緣集法界
4. 平等緣集法界

의 4법계로 설명한다. 또한 표원에 의하면,

법장의 高足の 한 사람인 정법사 혜원(靜法寺慧苑)의 설⁸²⁾로, 慧苑師가 이르되, 權小

79) 懷師에 대해서는 不明이지만, 表員은 『華嚴經文義要決問答』 속에서, 자주 懷師의 설을 인용하고 있다.(속장경1-12-4, 340右下~341左下) 法界의 出體에 대해서, ‘懷云以如如爲體’라고 말한다. 그리고 지금의 문답분별 속에서도 ‘問懷云云’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脚注에서 ‘准鏡論也’라고 하고 있다. 坂本幸南 박사는 ‘法界緣起의 歷史的 形成’, 『佛敎의 根本眞理』三省堂, 昭和31년, 891頁以下)에서, 懷師의 『法鏡論』에서 부터라고 말하면서 隨緣法界, 對緣法界, 忘緣法界, 緣起法界의 4法界를 들고 있다. 이것은 表員이 앞서의 저작 중에서 ‘平等法界緣集十七問答竟, 上來法鏡論師述之’(한국불교전서제2권, 375상)라고 하고 있으며, 또한 ‘懷師述如法鏡論云云’(상동, 380하)이라고 하는 것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永超錄』(『東域傳燈目錄』)에 의하면, 『法鏡論』은 ‘惶法師(=懷)의 저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大正藏 55, 1163中), 表員이 脚注에서 말하고 있는 ‘鏡論’과 ‘法鏡論’의 同異 및 懷法師와 惶法師가 동일인인가에 관해서는 문제가 되고 있다.

80) 이 ‘緣法界’라고 되어 있는 것을, 坂本幸南 박사는 앞의 論文 속에서 懷師의 四法界 가운데 제4 緣起法界에 다시 四分한 것이라고 하며, 이것은 慧光의 有爲緣起, 無爲緣起, 自體緣起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81) 이 ‘無爲緣起法界’는 뒤의 설명문으로 보아 ‘無爲緣集法界’의 오류인 것 같다.

二教 中에 事法은 心法과 心이 아울러 不相應이며, 能所造色으로 그 性을 삼고, 小乘敎의 理法界는 生空所顯의 無를 性으로 삼고, 權敎大乘의 理法界는 二空所顯의 不變眞如로 그 性을 삼으며, 實敎大乘은 理事無碍하여 爲와 無爲가 無二이며, 鎔融法界로 그 性을 삼고, 事事無碍法界는 爲와 無爲가 無二이나, 항상 蘊으로 性을 삼는다(若兼顯并用所依, 則通有漏五蘊爲性). 82)

라고 인용하고 있다. 여기에서 보면, 혜원은 사법계, 이법계, 이사무애법계, 사사무애법계의 4법계를 세워서, 제1事法界는 權小乘의 心法 및 心所法과 不相應法, 能造所造의 色法을 그 體性으로 한다. 제2理法界는 두 가지 입장이 있는데, 小乘敎는 生空所顯의 無를 체성으로 하고, 權敎大乘은 二空所顯의 不變眞如를 그 체성으로 한다. 제3理事無碍法界는 實敎大乘의 有爲無爲의 無二로 鎔融法界를 체성으로 하고, 제4事事無碍法界는 有爲와 無爲가 無二이기는 하지만 그러면서도 언제나 有漏의 五蘊을 통해서 체성을 이룬다고 하는 4법계설이다. 이러한 표원의 인용 외에 혜원은 『간정기』의 현담, 제3立敎差別 속에서 제4眞具分滿敎에 2문을 열어서, 첫째는 理事無碍門, 둘째는, 事事無碍門으로 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第四眞具分滿敎中에 二門이 있으니, 一理事無碍門, 二事事無碍門이라. 初中聖敎說, 眞如가 隨緣하여 一切法을 지으나, 自體를 잃지 아니하니, 諸法이 곧 眞이라 生滅에 걸리지 않는다. 까닭이 무엇인가. 無自性理로 말미암아 諸法이 得成하며, 諸法의 成으로 말미암아, 바야흐로 無性의 理가 나타나며, 이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諸聖敎中에 總히 三說이 있으니, 一依理成事, 二會事歸理, 三理事互成⁸⁴⁾이다.

이라 하고, 또한 事事無碍門에 대해서는,

二事事無碍門이란, 此事와 彼事가 或은 法性力所致를 말미암으며, 或은 神通等轉變을 말미암음을 말함이니, 이런 연고로 互望하여, 同類異類中에 相卽相在等, 相作相入等이 있으나, 그러나 이는 總히 三相에 의지하여 나뉘니, 一體事, 二德相, 三業用이라.⁸⁵⁾

82) 慧苑의 四法界說은 『刊定記』의 ‘入法界品’ 注釋部分에 나오겠지만, 그 부분이 欠落되어 현존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表員의 著作을 통해서 볼 수 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83) 『華嚴經文義要決問答』(속장경1-12-4, 340右下)

84) 『刊定記』(續藏經1-5-1, 14右下)

85) 上同(14左下)

이라고 하여, 理事無碍門, 事事無碍門이라는 용어를 이용하고 있고, 나아가 玄談의 제5 教體 속에서는,

大乘宗中에 스스로 四宗이 있으니, 一眞俗俱有宗, 二眞俗雙泯宗, 三理事無碍宗, 四事事無碍宗⁸⁶⁾

이라고 하는 네 가지 중에서도 이사(理事), 사사(事事)의 양종(兩宗)을 들고 있다. 이상에서 인용한 慧苑의 理事 및 事事的 내용을 정리해보면,

(1) 표원이 引用한 4법계

理事無碍法界 — 以爲無爲無二, 鎔融法界而爲其性

事事無碍法界 — 以爲無爲無二, 常蘊爲性

(2) 玄談 제3 立教差別의 眞具分滿教의 2문

理事無碍門 — 一依理成事, 二會事歸理, 三理事互成

事事無碍門 — 一體事, 二德相, 三業用

體事二種 { 一純淨無漏是德相所依體事
二通漏無漏是業用所依體事

德相二種 { 一通弁德相因
二別顯德相果十種德相 { 一同時具足相應德
二相卽德
三相在德
四隱顯德
五主伴德
六同體成卽德
七具足無盡德
八純雜德
九微細德
十如因陀羅德

86) 上同(16左上)

(3) 현담 제5 教體 중의 大乘四種에

理事無礙宗 — 一隨相, 二唯心, 三法性

事事無礙宗 — 一事事無礙法界宗中, 義之分齊爾.....一體事, 二德相, 三業用

의 세 군데에서 理事無礙와 事事無礙를 거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세 곳의 理事와 事事無礙의 의미를 좀더 정리해보면,

理事無礙 — 以爲無爲無二, 鎔融法界而爲其性

依理成事, 會事歸理, 理事互成.....隨相, 唯心, 法性

事事無礙 — 以爲無爲無二, 常蘊爲性.....體事, 德相, 業用

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에 의해서 혜원이 말하고 있는 이사무애나 사사무애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 혜원은 이사무애를 용용법계라고 하는 법계성(法界性), 유심(唯心) 쪽에 즉해서 의미를 두고 있으며, 사사무애를 덕상, 업용이라고 하는 여래의 공덕 쪽에 즉해서 의미를 두고 있다.

여기에서 주의되는 것은, 사사무애의 의미로서, 체사, 덕상, 업용을 설하고, 덕상 중에 德相果로서 십현문에 견줄만한 십종덕상을 설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법계관문』의 제3周遍含容觀의 10門과, 事事無礙法界, 十玄門은 대단히 관련이 깊은 교의이며, 그 관련을 좀더 분명하게 해주는 것이 징관의 『화엄경소』 및 『법계현경』에서 『법계관문』의 依用이다. 그리고 징관은 4종법계, 십현문으로 상징되는 법계관을 확립하였던 것인데, 그 원형은 이미 혜원의 『간정기』 속에 있다고 생각된다.⁸⁷⁾

87) 현존하는 慧苑의 著作만으로는 慧苑은 法界觀 形式에 『法界觀門』을 依用하였는지 어떤지는 알 수 없지만, 『圓超錄』 및 『永超錄』에 의하면 『華嚴旋復章』이라는 慧苑의 저서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刊定記』 권1 玄談 제7 顯義分齊 마지막에 ‘第二問答者, 具如別行旋復章說(續藏經1-5-1, 24左下)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慧苑의 저작에 『旋復章』이라는 것이 있었던 것은 확실하다. 그런데 坂本幸南 박사의 지적도 있는 것처럼 (『華嚴教學의 研究』 21頁) 『義天錄』에 ‘法界觀一卷, 旋復頌附-法順(大正藏 55, 1166中)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杜順에게 ‘旋復頌’이라는 것이 있어서, 慧苑에게 『旋復章』이라고 하는 저작이 있었다고도 볼 수 있다. 혹은 그 반대로 慧苑의 『旋復章』 중의 旋復頌이 『法界觀門』의 내용에 밀접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後人에 의해서 『法界觀門』에 부가되어 전해졌다고 하더라도, 慧苑에게 『法界觀門』으로부터의 영향은 아주 컸을 터이므로, 澄觀의 『法界觀門』 依用은 어떤 의미에서는 慧苑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

이상과 같이 징관은 기존의 『법계관문』을 주석하면서 그 三重觀에 四種法界를 대비시켜서 그 내용으로 심현문을 받아들임으로써 화엄원교의 교의체계를 확립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또한 징관 당시에 실천불교로 커다란 발전을 이루고 있었던 천태나 선종에 대해서, 화엄적 실천체계의 요청에 답하려고 한 의도가 엿보인다. 法界의 의미도 ‘法界緣起’의 敎義적인 체계를 이루게 되었고, 이는 법계가 證入의 경지로서, 또는 無盡理法으로서의 의미를 갖추는 이론적인 완성을 달성하였다고 본다. 澄觀이 중요시한 四種法界설은 단순한 교의체계가 아니라 그 저변에는 화엄법계를 꿰뚫어 보려고 하는 哲理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4. 一心法界와 一眞法界

법계에 대한 사상은 법계 연기를 거치면서 일반적으로 법계가 多義를 포괄하는 함축적인 의미로 강조되던 것이, 澄觀과 宗密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多로부터 一로 돌아가려고 하는 근원적인 本源을 추구하는 경향이 짙어지게 된다. 이러한 사상의 흐름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용어가 ‘一心法界’ 또는 ‘一眞法界’의 사상이며, 이는 화엄 법계연기의 종결점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화엄교학에서 ‘一心’의 계보는 그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화엄경』 중의 唯心偈와 「십지품」 제6현전지의 ‘三界虛妄但是一心’의 경문을 지적할 수 있다.⁸⁸⁾ 그리고 법계가 곧 일심이라고 말한 자료는 법장이 『탐현기』에서 각 화엄 祖師의 ‘宗’에 대한 의견을 논하는 대목에서, ‘靈裕法師는 甚深法界心境으로 宗을 삼고, 法界門 가운데에 뜻으로 心과 境을 나누어서 諸佛은 法界의 境을 증득하여 淨土를 이룩하고, 法界는 곧 이 一心이니, 諸佛은 法界의 一心을 증득하여 法身을 성취한다’고 하는 글에서⁸⁹⁾ 법계가 곧 이 일심이라고 하는 예를 볼 수 있다. 그리고 智嚴은 『搜玄記』에서 「十玄門」 가운데에 제9唯心回轉善成門⁹⁰⁾을 세우고, 법장은 이에 대하여 『화엄오교장』에서 ‘唯是一如來藏 自性清淨心轉’으로 해석하고 있다.⁹¹⁾ 그리고 지엄은 다시 「佛昇夜摩天自在品」의 주석에서 말하기를 ‘一乘을

도 가능하다.

88) 唯心偈 및 현전지의 一心에 대해서는, 본각 「화엄관법에 있어서 空觀의 意義」(1994, 중앙승가 대학논문집 제3집, pp.114~118참조)

89) 『탐현기』(大正藏 35, p.120상)

90) 『수현기』(大正藏 35, p.15중)

91) 『화엄오교장』(大正藏 45, p.507상), 법장은 그의 만년의 저서인 『탐현기』에서는 유심회전선성문을 심현문에서 제외시키므로, 법장은 唯心을 중요한 과제로 삼지 않았다는 평

잡아서 논하면 중생이 머무는 염부제가 곧 一心法界境界이다.⁹²⁾라고 하여 본 항에서 주제가 되는 ‘一心法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본다. 즉 三乘의 경지에서는 염부제는 苦·空·穢·惡의 곳이며, 一乘과 三乘의 共通의 경지에서 본다면 염부제는 實際인듯하나 空에 즉한 것이며, 一乘의 경지에서 본다면 염부제는 곧 一心法界의 경계라고 하여, 하나의 염부제에 대하여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차별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법계 연기사상의 맥락에서 일심법계 내지는 일진법계를 중요한 테마로 잡아서 서술한 것은 정관과 종밀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정관은 『三聖圓融觀門』에서 문수와 보현의 二聖의 원용을 논하는 대목에서 二聖이 서로 융통하므로 문수 보현을 별도로 거명할 것이 없다는 이유로써 오직 ‘一心法界’인 연고로 하나를 들면 전체를 거둔다고 하는 뜻에서⁹³⁾ 일심법계를 논하고 있다. 또한 『華嚴經疏』에서 法藏의 설을 이어서 法界因果의 ‘十義五對’를 설하는 가운데 처음의 ‘無等境’을 一眞法界⁹⁴⁾라하고, 둘째의 ‘無等心’을 緣起라고 설명하는 곳에서 在纏性淨法界와 出纏最清淨法界를 총괄하여 一眞法界라고 정의하고 있음을 본다.⁹⁵⁾

이어서 정관은 『화엄경』의 經의 제목을 해석하는 부분에서 十門으로 분별하는 가운데 제9를 攝歸一心, 제10을 泯同平等이라 하여 이 두 문을 설명함에 一心이 곧 法界이므로 일심을 여의고 별도로 현상차별이 없으며, 심지어 제10문에서는 마음과 경계가 평등하여 둘이 아닌 경지에 이르는 것이 곧 화엄 經題의 궁극적인 의미임을 밝히고 있다.⁹⁶⁾

더 나아가서 『화엄경』의 ‘三界는 허망하여 오직 一心에 의해서 짓는 것이며, 十二緣分이 다 心에 의한다’⁹⁷⁾고 하는 경문 중에 ‘一心所攝을 주석함에 법장은 十重唯識⁹⁸⁾을 세워서 대승초교로부터 圓中別敎의 心識의 경지를 논하여, 앞의 4증을 아뢰야식연기에, 중

을 받기도 한다.

92) 지엄 『수현기』 『若約一乘時 此閻浮處卽一心法界境界 若佛若處俱顯處染無穢之最佛故』 (大正藏 35, p.37중)

93) 澄觀 『삼성원음관문』(大正藏 45, p.671하)

94) 法藏은 이 無等境을 理實法界라고 표현했고(大正藏 35, p.120중), 정관은 一眞法界라고 표현했다. 이 一眞法界에 대한 용어 사용은 慈恩寺 基의 저서인 『大乘法苑義林章』의 「二諦義」 중에, 제1世間勝義, 제2道理勝義, 제3證得勝義, 제4勝義勝義諦를 설한 가운데 제4승의를 설명하여 말을 폐하고 뜻을 나투는 경지로 非安立生空無我的 一眞法界라고 표현함을 본다. (大正藏 45, p.288하)

95) 정관 『화엄경소』(大正藏 35, p.522중~하)

96) 상동 (大正藏 35, p.524중, 526중 참조)

97) 『화엄경』(大正藏 9, p.558하)

98) 『탐현기』(大正藏 35, p.347상)

간의 3중을 여래장연기에, 뒤의 3중을 화엄 법계연기에 대응시켜서 주석한 부분⁹⁹⁾ 징관은 唯識을 一心으로 바꾸어서, 二乘人의 不了唯心과 異熟賴耶一心과 如來藏性清淨一心의 3단계로 나누어서 ‘十重一心’¹⁰⁰⁾을 설하여 華嚴一心觀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一心의 추구가 종말에 이어져서 十重一心을 크게 五重으로 구분짓고 제5중을 ‘萬有를 總該함이 곧 이 一心’¹⁰¹⁾이라고 한다. 그의 圓覺妙心이나 一眞法界설이 다 이 一心의 추구에 연원을 두고 있다고 본다.

징관은 『行願品疏』에서 글의 첫머리에 ‘大哉라 眞界여 萬法이 이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며 歸敬偈에 있어서도 ‘稽首歸依眞法界’¹⁰²⁾라고 표현한 眞界·眞法界에 대해서, 종말은 『행원품소초』에서 다음과 같이 주석하고 있다.

眞界라는 것은 곧 眞如法界이니 法界는 類가 비록 多種이나 통섭해 보이면 오직 一眞法界이니, 곧 諸佛과 衆生의 本源인 清淨心이라. 고로 아래에 宗을 세워 이르기를 統하면 오직 一眞法界이니 곧 이 一心이라.¹⁰³⁾

위의 글에서 일진법계가 곧 일심임을 알 수 있고 제불과 중생의 本源 청정심이라고 정의하고 있음을 본다. 그리고 또한 이 一法界心이 諸法을 성립시키는 작용으로 총괄하면 2門이 있으니 ‘性起門과 緣起門이라 하며, 性起의 性は 眞界이며 起는 萬法으로 法界性的 전체가 곧 起가 되어 이것이 바로 ‘一切諸法’이라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¹⁰⁴⁾ 그리하여 종말이 잘 사용하고 있는 全揅全收의 이론을 적용하여 全揅은 諸宗을 全揅하는 別敎 性起이며, 全收는 諸宗을 全收하는 同敎 緣起라고 논을 정리하나, 결국 二門은 不二로써 華嚴圓宗의 所顯인 眞界가 萬法을 生起한다고 주장하고 있다.¹⁰⁵⁾

이상과 같이, 一心法界 및 一眞法界가 근본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일체 평등, 원음의 경지를 지칭하고 있으며 多義적인 法界義를 거쳐서 ‘一’을 통하여 ‘多’를 포괄하려는 사상의 전향이 징관을 통하여 강조되기 시작하였다고 본다. 징관 이후 종말에 이르러서는 이 總

99) 陳永裕 『華嚴觀法の基礎的研究』(1995년, 民昌文化社, pp.404~406참조)

100) 『화엄경소』(大正藏 35, p.806중~하)

101) 종말 『행원품소초』(속장경1-7-5, 423右). 그러나 ‘總該萬有卽是一心’의 글귀는 징관의 『행원품소』(속장경1-7-3, 249右)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으므로, 종말은 이에 의한 것이라고 본다.

102) 징관 『행원품소』(속장경1-7-3, 235左, 236右)

103) 종말 『행원품소초』(속장경1-7-5, 제6권 399左)

104) 상동 (속장경, 399右)

105) 상동 (속장경, 401左)

括圓融적인 一心 法界 내지는 一眞法界의 의미가 本源的이고 萬法이 生起하는 根源으로 의미가 변형된 데에 華嚴一心論의 변질의 일면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一眞法界의 시원을 李通玄에 두고 이통현이 주장한 일진법계사상과 화엄교학에서 말하는 絶對理의 본원적인 一眞法界와는 다르다는 주장도 있다.¹⁰⁶⁾

VI. 결론

이상으로 화엄교학의 중심 敎義인 法界의 뜻을 추구해 보는 것으로 論을 시작하여, 과연 화엄교학에서 법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나름대로 문헌을 고찰하면서 정리하여 보았다. 그리고 法界라는 용어에 들어가기 이전에 ‘法’은 무엇인가, ‘界’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先學의 연구에 힘입어 나름대로 살펴 보았고, 18界 중에 意識의 대상경계로서의 法界라는 용어의 가장 단순한 의미로부터 법계라는 하나의 말에 함축되어 있는 多義적인 면모도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사상적인 발전으로써 理法界와 事法界, 그리고 無障礙法界라고 하는 법계 연기의 형성 단계로부터 解行 證得의 면에서 普賢 경계와 十佛自境界의 법계의 의미를 거쳐서, ‘법계연기’라고 하는 사상이 형성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 법계 연기는 연기법의 중층적인 측면을 法界라는 용어에 의탁하여 중중 무진의 연기세계를 표출하고자 노력한 화엄사상의 전개를 법계를 통하여 살펴볼 수 있었다.

智儼이 普賢行을 중시하고 보현행의 一乘의 경지를 無碍自在한 法界에 의탁하여 표출하였다고 한다면, 義湘은 스승의 이 一乘法界를 중요시하면서 일승법계가 바로 法性圓融의 緣起實相陀羅尼法이라는 緣起法을 강조하는 사상의 형성을 이룩하였던 것이다.

여기에 義湘의 영향을 크게 받은 法藏은 그의 因果, 緣起, 理實法界가 의미하듯이 연기

106) 이 一眞法界사상에 대해서 小島堡山氏는 그의 『妄盡還源觀』의 撰者をめぐる諸問題』

(1982, 『南都佛敎』 제49호 p.26, 29)에서 法藏 이후에 화엄사상은 절대적 理의 세계인 一眞法界가 중시되어 화엄사상의 근본에 놓이게 되고, 『妄盡還源觀』의 自性清淨圓明體가 이 一眞法界에 상당하는 사상이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一眞法界사상은 李通玄으로부터 시작되며 그의 저서 속에서 一眞法界의 용어를 모두 정리하고 있다.(위의 논문 注65 참고) 또한 李通玄이 주장한 一眞法界는 중중무진의 세계를 강조하기 위해서 일진법계라고 이름 붙인 것에 불과하고, 『妄盡還源觀』의 自性清淨圓明體와 같은 화엄사상의 모든 것을 하나에 모으는 一眞法界와는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를 핵으로 하여 현상과 본체의 圓融不二의 세계를 無障礙法界로 정의하였다. 법장의 화엄교학의 바탕은 緣起法의 圓融性을 이론적으로 전개하는데 있었고, 여기에 법계 연기사상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본다. 이어서 연기법의 현상의 多를 통하여 一에 돌아가고자 하는 사상의 전환이 澄觀과 宗密에 이르러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결국은 一心法界, 내지는 一眞法界를 강조하는 사상을 법계 연기의 맥락 속에서 고찰하였다.

결국 화엄교학에서 法界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넘어서 영속하는 법성의 성품을 뜻하기도 하며, 법계에 證入하는 普賢을 의미하기도 하고 중중무진의 圓融無障礙를 나타내는가 하면, 一心 또는 一眞으로 본원성, 내지는 순일성을 내포하기도 하는 것이다. 화엄교학은 현상의 차별 연기와 본성의 평등 연기를 무진원용으로 정립하고자 포착한 용어가 곧 '法界'이었으며, 그 사상의 확립이 곧 '법계연기'였다고 본다. 그러나 법계 내지 법계연기는 그 자체가 이미 多世界이면서 一世界라고 하는 모순과 제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대승불교의 대표 개념인 空性이 설명을 거부하는 것과 같이 법계 또한 한정되거나 설명되어지지 않는 상징의 용어로 이해할 수 있을 뿐이다.